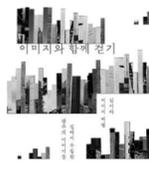


과연 노잼도시일까? 광주를 둘러싼 이미지 비평

이미지와 함께 걷기

김서라 | 민음사 | 1만6000원



‘5·18의 도시’, ‘민주주의의 고장’ 그리고 ‘노잼 도시’이자 소멸 위험의 지방 도시. 우리에게 익숙한 광주의 이미지들이다. 광주는

매년 5월 정치인들이 찾는 곳이자 잇을 만하면 가짜 뉴스에 휘말리는 정치적인 도시다. 5·18민주화운동의 이미지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40년 전 항쟁의 이미지는 지금 젊은 세대의 고민과 잘 이어지지 않는다. 광주는 다른 지방 도시들처럼 ‘지방 소멸’ 담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실제 광주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철학 연구자 김서라의 『이미지와 함께 걷기』는 광주를 둘러싼 이미지에 대한 비평이자, 광주에서 살며 쓰는 광주 이야기이다. 저자는 광주에 대한 익숙한 이미지들 사이에서 낯선 이미지들을 발견하고, 광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일상을 보여준다. 특히 수도권 중심 개발의 역사에서 지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 책 『이미지와 함께 걷기』에서는 이곳에 남아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흔적 추적한다. 뉴스스

방 도시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며 어떻게 적응했는지, 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모양 지어졌는지를 보여준다. 도시의 기억을 담은 오래된 길과 건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김서라는 길에서 마주치는 기억의 파편을 주우며 새로

운 도시를 그려낸다. 책 1부 ‘전남의 이미지들’에는 광주와 전남을 재현한 이미지에 대한 비평이 실렸다. 김서라는 ‘순수한 고향’으로 전남을 기록하고자 했던 사진작가 강봉규의 작품을 비평하며 개발과 보존의 이분법을 벗

어나고자 한다. 나아가 사북항쟁(강원도 정선 사북읍 일대에서 발생한 탄광 근로자들의 총파업 사건)이 벌어졌던 1980년 당시 광주에 ‘폭동’의 이미지로 전파됐던 사진보도를 비판하고 이를 덮어쓰는 새로운 이미지를 꺼내 놓는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미술작가 박화연은 직접 사북을 찾아가 관련자들의 증언을 듣고 사북의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한다. 근대화 시기에 만들어진 광주와 전남의 이미지들은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법을, ‘전라디언의 굴레’를 만들고 있다. 그 익숙한 이미지를 이탈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글은 그 자체로 역사 다시 쓰기이자 정치적인 말하기다.

2부 ‘광주 2순환도로’와 3부 ‘방직공장의 가장자리’에서 이어지는 글들은 광주 도시개발의 상징인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광주의 구도심과 신도심, 오래된 건물과 재개발이 한창인 공사장 사이를 거닌다. 김서라는 1980년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근대화의 결과 파괴된 것들의 흔적을 수집한다. 그가 시선을 두는 곳은 고층빌딩이 지어지기 이전 사람들이 모여 살던 주거지, 그곳의 풍경을 만들던 소리들, 구도심에 여전히 머무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래된 방직공장에 남아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흔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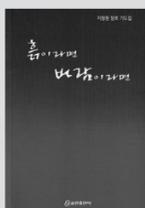
곧 허물어질 방직공장의 오래된 건물들을 둘러보며 김서라는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울고 웃던 시간을, 고층우의 폭력에 맞서 싸운 기록을 발견한다.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은 그는 “광주는 섬유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만든 도시”라는 호명으로 도시의 기원을 다시 쓴다. 역사의 흔적과 기억의 파편을 수집하며 도시를 걷고 쓰는 일은 새로운 모양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도시는 점차 그곳에 살아가는 이들의 삶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길과 동네에 그들의 일상과는 무관한 수식어들이 붙고,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아래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공사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김서라가 말하듯 도시를 걷는 사람 없이 도시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도시에서 살아가는 서로를, 서로의 생존 조건을 계속 마주치는 일은 저항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미지와 함께 걷기』는 도시에서의 삶에 지칠 때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을 건넨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어느 순례자의 기도문

홍이리 | 바람이리 | 1만2000원



언론인으로 광주 무등교회를 섬겨온 지형원 장로가 기도집 ‘홍이리면 바람이리’를 출간했다. 표제인 ‘홍이리면 바람이리’는 하나님 이름이 그 속에서 울리는 새싹이 되고, 하나님이 바람이라면 바람과 함께 나뭇잎은 낙엽이 되고자 한 바람을 담은 뜻이다.

이 기도집은 1부 ‘기도의 시’, 2부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 3부 ‘특별한 날의 기도’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실린 80여 편의 기도문은 지형원 장로가 10여 년 동안 장로로 시무하면서 썼던 대표기도문과 특별한 날의 기도문을 묶은 것이다.

1부 수록작 ‘무등교회 청소부 또는 우체부’에서 그는 ‘내 나이 일흔살 즈음에는 무등교회 청소부, 또는 이 근방을 담당하는 우체부가 되고 싶다 / 광주시 서구 매월동 310번지 매화꽃 앞에 달빛이 고이고 / 교회당 십자가 답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 앉는 / 무등교회, 아니 우리교회에서 /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락을 쓰는 청소부가 되고 싶다’고 썼다. 또 ‘빈배’라는 시

에서 ‘주님, 앞으로의 삶은 / 빈배를 저으며 나아가려 합니다 / 사람들은 만선의 귀환만을 원하지만 만선의 배에는 주님 계실 자리가 없으니 / 빈배로 / 빈배로 돌아오다가 / 언제 어디서든 멈춰서 주님을 태워드리려 합니다’라고 고백한다.

2부 수록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에서는 ‘내가 사는 집도 비밀번호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고 내가 맡겨놓은 예금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찾을 수 없는 이 복잡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번호는 절대로 잊지말자’고 호소한다. 이 밖에도 ‘고개를 끄덕이는 은혜’ ‘연결과 접속’ ‘눈물행진’ ‘영적수혈’ ‘미래의 이력서’ 등 일상생활에서 느낀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다.

축간사를 쓴 분당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지형원 장로의 기도문은 지금까지 출간된 기도문과 사뭇 다르다”며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산길을 걸으며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일상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귀엣말로 속삭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형원 장로는 광주일보 문화부장 겸 논설위원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전라도문화포털 ‘문화통’ 발행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등을 지냈다.

도선인 기자

세계적인 미술품의 가격은 어떻게 매겨질까?

그림값 미술사 | 이동섭 | 몽스북 | 2만2000원



미술 분야의 인문학 적 통찰을 들려준 이동섭 작가가 3년만에 신작을 선보인다.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그림값의 비밀을 통해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파헤

친다. 비싼 그림들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비싼 그림들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미술’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 중 유독 많지 않은 것이 ‘그림값’에 대한 이야기다. 서양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귀한 작품들에 천문학적 가격이 매겨지는 것은 이해해도 난해한 현대미술 작품에 어마어마한 돈이 몰려드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다. 그림값이 결정되는 미술 시장은 미술사, 경제

학, 역사학, 심리학 등 종합적인 요소가 반영되는 곳이다.

이 책에서는 미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9가지의 그림값 결정 요인을 설명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저자가 첫번째로 소개한 결정 요인은 ‘VIP의 소장작’이다. 근대 미술의 탁월한 컬렉션을 구축한 역사적 화상 폴 로젠버그, 패션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 등 전세계 VIP들의 선택이 마티스의 작품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소개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현대 화가’로 등극한 마크 로스코의 ‘화이트 센터’는 소장자들의 이름만 놓고 보자면 이보다 더 명예로울 수 없을 정도의 작품이다. 예술을 사랑하는 미국 상류층의 모범과도 같은 록펠러 가문 그리고 카타르 국왕이 ‘화이트 센터’의 소장자들이다. 유명인의 컬렉션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작품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간다. 뿐만 아니라 작품이 걸려있던 장소 역시도 작품 가격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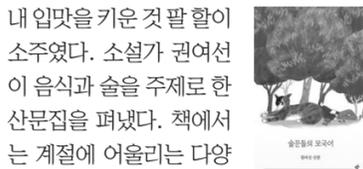
된 사례가 소개된다.

‘VIP의 소장작’ 외에 다빈치와 라파엘로 등 서양미술사의 최고 권위를 차지하는 화가들의 작품은 어마어마한 값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림값 결정 요인 두 번째로 소개한 ‘희귀성’이다.

세 번째로 소개하는 결정 요인은 ‘미술 사적 가치’이다. 근대 미술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마네, 인상주의의 시작을 알린 모네, 추상주의를 창조한 칸딘스키, 현대 미술계의 슈퍼스타 리히터 등 서양미술사의 흐름 안에서 한 획을 그은 화가들의 작품과 그 그림값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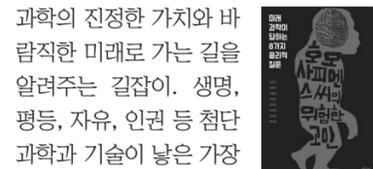
네번째 요인 ‘스타 화가의 사연 많은 작품’ 챕터에서는 클림트, 앤디 워홀, 잭슨 폴록 등 스타 화가들의 작품 값과 연결된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소개된다. 그 밖에도 ‘컬렉터의 특별한 취향’ ‘투자의 법칙’ ‘구매자의 경쟁심’ ‘뜻밖의 행운’ ‘명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등 그림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소개한다. 도선인 기자

술꾼들의 모국어 | 권여선 | 한겨레출판 | 1만6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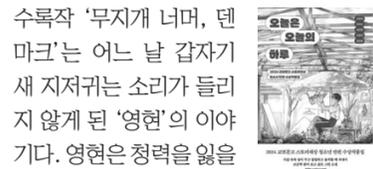
내 입맛을 키운 것 팔 할이 소주였다. 소설가 권여선이 음식과 술을 주제로 한 산문집을 펴냈다. 책에서는 계절에 어울리는 다양한 음식들이 총 5부, 20개 장에 걸쳐 소개된다. 대학 시절 처음 순대를 먹은 후 미각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입맛을 넓혀가기 시작한 저자에게 먹는 행위는 하루를 세세히 구분 짓게 하며, 음식은 ‘위기와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화해와 위안을 주기’도 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이 밖에도 제철 재료를 고르고, 손질하고, 조리하고 먹는 과정까지. 그야말로 최고의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감을, 풀어내는 모국어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책은 권여선이 소설에서 미처 다 풀어내지 못한, ‘혀의 언어’로 차려낸 진수성찬이다.

호소 사피엔스 씨의 위험한 고민 | 권복규 외 7인 | 메디치미디어 | 2만2000원



과학의 진정한 가치와 바람직한 미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 생명, 평등, 자유, 인권 등 첨단 과학과 기술이 낳은 가장 중요한 가치와 관련된 논란을 이 시대 최고의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8명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답한다. ‘유전자 조작된 아이가 태어난다면?’ ‘로봇과 인공지능이 널리 보급되어 인간과 공존하는 사회가 된다면?’ 등 생명, 평등, 자유, 인권 등 과학과 기술이 낳은 가치와 관련한 논란을 각자의 시각으로 쉽게 풀어내고, 나아가 그들의 시각에 대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과학의 가치와 미래로 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은 오늘의 하루 | 조찬희 외 4인 | 북다 | 1만3800원



수록작 ‘무지개 너머, 덴마크’는 어느 날 갑자기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영현’의 이야기다. 영현은 청력을 잃을 것이라는 진단을 담담히 받아들이지만, 난청인인 아버지는 장애인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 당장 덴마크로 떠나자고 말하는데... 책은 어른이 될 내일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청소년을 긍정하는 메시지를 제목에 담아, 청소년에게 전하고자 한다. 때로는 경쾌한 활기로, 때로는 뜻밖의 인내로 저마다의 ‘오늘’을 그려낸 다섯 빛깔의 이야기가, 오늘도 오늘 하루의 기쁨과 슬픔 속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힘이 되는 다양한 응원으로 다가갈기를 바란다.



@jnilbo

Kakao Talk : 전남일보 E-Mail : jebo@jnilbo.com



전남일은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